

#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류현숙 · 백민자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Influencing the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Ryu, Hyun-Sook · Baek, Min-Ja

Department of Nursing, Shingyeong University, Hwase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98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J Province and G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PC+ 15.0. **Results:**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drinking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smoking status, pocket money, coping strategy of problem solving, positive expectancy of alcohol drinking and negative expectancy of alcohol drinking. These factors could explain 30.4% of the drinking behavior. Stress did not affect the drinking behavior of subjects. **Conclusion:** Drinking behavior of the subjects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for all women. In order to decrease the drinking behavior, the development of drinking reduction programs is needed and it can lead healthy life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Drinking behavior, Life stress, Coping skill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시절은 가장 음주를 많이 하는 시기로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자 77.8%, 여자 43.3%였으며, 이 중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의 음주율은 남자 81.6%, 여자 52.1%로 나타나 30대 이상 성인의 음주율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2011). 특히, 대학생 음주 중에 절반 이상이 폭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Suh & Yang, 2011)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는 학습 능력의 저하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문제행동으로 이어져 폭력 사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 대인 관계 문제를 유발하거나 지나친 음주로 인해 불행한 사고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Park, 2000; Yang & Han, 2003).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서 음주는 현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h & Yang, 2011). 이 시기의 음주는 대부분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선·후배의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위에서 강제적으로 술을 권하거나 혹은 자신의 알코올에 대한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아서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Kim, Kim, Kim, & Jeon 2009). 대체로 성인들

**주요어:** 음주행위, 스트레스, 대처

**Corresponding author:** Ryu, Hyun-Sook

Department of Nursing, Shingyeong University, 400 Namyang-ro, Hwaseong 445-741, Korea.  
Tel: +82-31-369-9206, Fax: +82-31-369-9116, E-mail: rhs@sgu.ac.kr

투고일: 2012년 6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3일

의 건전하지 못한 음주 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대인관계 형성이나 스트레스 해소 및 대학 내 행사에서 음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Yang & Han, 2003). 더욱이 음주에 대해 대체로 허용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의 음주는 남성에 비해 같은 양에도 더 빨리 취하게 되며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크고 부정적인 결과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성에 비해 음주시작 연령이 늦고,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이 적기는 하나,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고 음주 시작에서 음주문제로 발전하는 기간이 짧다(Mun, 2007; Yang & Han, 2003). 특히, 여성은 임신, 분만, 육아 등의 고유의 성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음주가 향후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대생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고 신체적 차이로 음주로 인한 피해가 남성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음주에 대한 관심이나 예방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일부 사회기관에서 치료나 상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Mun, 2007). 청년기 초기인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된 음주 행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미 특정한 음주 습관이 형성되면 절주나 금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Ham & Hope, 2003; Lee & Lee, 2000) 청년기의 음주는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Kim et al., 2009).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대생에게 음주에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스트레스는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져 왔다(Boyd, Baliko, Cox, & Tavakoli, 2007). 일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생활사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술을 마시게 된다. 대체로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정도가 높았다는 보고들이 있으며(Mun, 2007; Yang & Han, 2003; Suh & Yang, 2011), 문제음주자의 경우에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다른 대처 수단을 찾기보다는 음주를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보고(Kim, 2001)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알코올 의존의 시작과 지속 및 재발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Jung, 2009). 여대생들에게 스트레스와 음주행위간의 관계를 검증한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an, Yang, & Chon, 2003). 그러나 스트레스를 감소를 위해 음주를 한다는 보편적 생각과 달리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음주행위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여(Greeley & Oei, 1999; Jung, 2009),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h와 Yang (2011)의 연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음주는 스트레스원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더라도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여대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법 및 음주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고 여대생이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로 음주를 선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학적 요인으로 음주문제 예방 및 치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요인이다.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평가함으로써 절주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감소시킴으로써 음주를 절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대두되고 있지만, 연구가 많지 않으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적 음주기대가 음주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음주기대와 음주행위간의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Kim, 2000). 더욱이 여대생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실정이다(Hasking, Lyvers, & Carliopio, 2011). 이에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긍정적, 부정적 음주기대가 음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음주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문제음주자나 남성음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대생의 음주를 예측하는데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기대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는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자고 시도하였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음주행위정도를 파악하고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도와 G시 소재 3곳의 대학교에서 2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는 15개이며 유의수준 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15으로 하여 최소표본의 크기는 199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 수가 충족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음주행위

음주행위는 Do (2007)의 음주행위 척도를 이용하였다. 음주행위는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의 3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에서 12점까지의 범위이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검사-재검사 신뢰도 .80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48$ 이었다.

###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Chon, Kim과 Yi (2000)가 개발한 대학생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의 하위 척도 친구관계 5문항, 이성관계 6문항, 가족관계 6문항, 교수관계 6문항, 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경험빈도)와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중요도)에 관해 4점 Likert 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스트레스 점수는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보고된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0 \sim .880$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17 \sim .939$ 로 나타났다.

### 3)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측정도구는 Amirkhan (1990)이 개발하고 Shin (2002)이 번안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도구(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대처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대처행동 11개

문항,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 11개 문항, 회피적 대처행동의 11개 문항의 총 33문항 3점 척도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사회적 대처행동 .863, 문제중심적 대처행동 .873, 회피적 대처행동 .749로 나타났다.

### 4) 음주기대

음주기대에 관한 측정도구는 Kim (2000)이 개발한 음주기대도구를 사용하였고,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음주기대 17개 문항, 부정적 음주기대 17개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긍정적 음주기대 .930, 부정적 음주기대 .921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9월 5일에서 30일까지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들이 대학캠퍼스 내에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동의한 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연구의 익명성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 철회의 가능성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에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298부를 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음주행위, 스트레스, 대처방식, 음주기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은 1학년 24.5%, 2학년 32.6%, 3학년 31.5%, 4학년 11.4%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30.9%, 불만족한 경우가 21.1%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6.2%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19.1%)보다 많았다. 흡연자가 5.0%였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가 17.4%였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84.9%로 가장 많았고, 용돈은 30~39만원이 34.8%로 가장 높았고 20~29만원이 29.3%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50만원 이상이거나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각 10.3%, 13.1%로 적었으며, 평균 29.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39.6%, 종교가 없는 사람이 42.0%, 천주교가 8.4%, 불교 10.1%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	73 (24.5)
	2	97 (32.6)
	3	94 (31.5)
	4	34 (11.4)
Life satisfaction	Poor	92 (30.9)
	Moderate	143 (48.0)
	Good	63 (21.1)
Health status	Poor	57 (19.1)
	Moderate	114 (38.3)
	Good	127 (42.6)
smoking status	Non-smoker	266 (89.3)
	Ex-smoker	17 (5.7)
	Current-smoker	15 (5.0)
Exercise	Yes	52 (17.4)
	No	246 (82.6)
Religion	Christian	118 (39.6)
	Catholicism	25 (8.4)
	Buddhism	30 (10.1)
	None	125 (42.0)
Residual status	With parents	243 (81.5)
	Others	55 (18.5)
Economic status	High	27 (9.1)
	Middle	253 (84.9)
	Low	18 (6.0)
Pocket money (10,000 won/m) M±SD: 29.7±13.95	Less 20	38 (13.1)
	20~29	85 (29.3)
	30~39	101 (34.8)
	40~49	36 (12.4)
	More 50	30 (10.3)

## 2. 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

지난 1년 동안에 음주를 한 적이 있는 경우가 87.2%였고, 지난 1달 동안의 음주를 한 경우는 77.5%였으며, 음주 횟수는 월 2~3회가 29.5%로 가장 많았고 매일 마시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음주량은 각각의 술잔을 기준으로 하여 소주인

경우 소주잔으로, 맥주인 경우 맥주잔으로 조사하였으며, 7~9잔과 3~4잔이 각각 18.8%, 17.4%로 많았고,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6.4%였다. 한번 마실 경우 소주 7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는 월 1회가 25.5%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하는 경우는 6.0%,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34.2%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의 음주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경우는 13.8%, 매우 관용적인 경우는 5.7%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rinking experience (1 year)	Yes	260 (87.2)
	No	38 (12.8)
Drinking experience (1 month)	Yes	231 (77.5)
	No	67 (22.5)
Frequency of drinking	Everyday	3 (1.0)
	Almost everyday	8 (2.7)
	3~4/week	15 (5.0)
	1~2/week	65 (21.8)
	2~3/month	88 (29.5)
	≤ 1/month	52 (17.4)
Amount of drinking (glass <sup>†</sup> )	1~2	45 (15.1)
	3~4	52 (17.4)
	5~6	40 (13.4)
	7~9	56 (18.8)
	≥ 10	49 (16.4)
Binge drinking	Never	102 (34.2)
	≤ 1/ms	69 (23.2)
	1/ms	77 (25.8)
	1/wks	32 (10.7)
	Almost everyday	18 (6.0)
Parent's attitude of drinking	Very permissive	17 (5.7)
	Permissive	51 (17.1)
	Moderate	140 (47.0)
	Negative	49 (16.4)
	Very negative	41 (13.8)

<sup>†</sup> Soju: glass of soju; Beer: glass of beer.

## 3. 음주행위, 스트레스, 대처, 음주기대 정도

음주행위는 12점 만점에 평균 4.37점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 정도는 8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 영역은 학업문제였고,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는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 대처행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적 지지추구 유형이 3점 만점에 평균평점 2.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중심 대처행동이 2.10점, 회피중심 대처행동 1.7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음주기대는 음주의 결과에 대

해 긍정적 음주기대가 2.62점, 부정적 음주기대가 2.25점으로 긍정적 음주기대가 다소 높았다.

4. 음주행위와 스트레스, 대처, 음주기대 간 상관관계

음주행위와 스트레스, 대처, 음주기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행위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스트레스 대처 중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 $r = -.199, p = .001$ )가 있었고, 긍정적 음주기대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 $r = .270, p < .001$ )가 있었다. 스트레스 경험은 회피 중심 대처( $r = .368, p < .001$ )와, 긍정적 음주기대( $r = .232, p < .001$ ), 부정적 음주기대( $r = .179, p = .003$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음주기대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 $r = .315, p < .001$ )를 나타냈다

(Table 3).

5.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흡연경험 유무, 용돈,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형, 음주기대를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흡연경험, 용돈, 문제해결중심 대처,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가 여대생의 음주행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수임이 확인되었다( $F = 25.653, p < .001$ ). 이 중 흡연경험( $\beta = .39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은 긍정적 음주기대( $\beta = .240$ ), 문제해결중심 대처( $\beta = -.136$ )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들로 총 3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Table 3. Correlation among Drinking Behavior,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lcohol Expectancy (N=298)

Variables	Drinking behavior	Stress	Coping_ social support	Coping_ problem solving	Coping_ avoidance	Positive alcohol expectancy
	r (p)	r (p)	r (p)	r (p)	r (p)	r (p)
Stress	.109 (.063)					
Coping_ social support	.009 (.882)	.157 (.007)				
Coping_ problem solving	-.199 (.001)	.085 (.145)	.429 (< .001)			
Coping_ avoidance	.001 (.986)	.368 (< .001)	.061 (.294)	.042 (.468)		
Positive alcohol expectancy	.270 (< .001)	.232 (< .001)	.315 (< .001)	.009 (.877)	.167 (.004)	
Negative alcohol expectancy	-.111 (.058)	.179 (.002)	-.027 (.645)	.195 (.001)	.008 (.894)	.088 (.130)

Table 4. Factors Affecting Drinking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N=298)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654	.778		2.128	.034
Smoking	2.862	.371	.391	7.720	< .001
Positive alcohol expectancy	0.739	.154	.240	4.809	< .001
Coping of problem solving	-0.765	.286	-.136	-2.672	.008
Pocket money	0.028	.009	.166	3.279	.001
Negative alcohol expectancy	-0.348	.144	-.124	-2.423	.016

Adj R<sup>2</sup> = .304, F = 25.653, p < .001

## 논 의

지난 1년 동안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87.2%였고, 최근 1달 동안 음주를 한 경우는 77.5%였으며, 음주 횟수는 월 2~3회가 29.5%로 가장 많았고 매일 마시는 경우는 2.7%로 나타나 여대생의 음주 기회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우리나라 전체의 음주율은 89.0%였으며, 19세 이상 여성의 음주율은 67.8%로 조사되었고, 월간 음주율은 43.3%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ang과 Han (2003)은 여대생 중 92.3%가 음주를 하고 있어서 20세 이상 전체 여성 음주율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Mun (2007)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88.6%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8.9%가 한 달에 1~3회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량은 7~9잔과 3~4잔이 각각 18.8%, 17.4%로 많았고,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6.4%였다. 한번 마실 경우 소주 7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는 월 1회가 25.5%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하는 경우는 6.0%,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34.2%로 조사되었다. Mun (2007)의 연구에서도 음주량이 반병에서 한 병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주로 20대 초반에 해당되는 여대생들이 일반 성인 여성들보다 음주의 빈도나 음주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을 포함한 음주행위 정도는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Mun (2007)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Jung (2009) 연구에서 보면 여자들의 적정음주량을 2잔으로 볼 때, 31.7%만이 적정량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정음주량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현재 음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속된 음주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약 80% 정도가 대학에 들어온 후 정기적인 음주를 하기 시작했으며(Kim et al., 2009), 선후배 친목 모임, 엠티, 환영회 등의 사회적 활동들에서 자연스럽게 음주문화를 접하게 되고, 주위에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익숙해지게 되어 점차 술을 마시는 것이 대학생활의 일부로 여기게 된다. 이로 인해 폭음과 문제성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건강상의 문제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청년기에는 음주로 인한 신

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금주에 대한 생각도 많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주 습관이 형성되면 향후 절주나 금주를 위한 행동 수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습관이 확립되기 전에 체계적인 음주 교육을 통한 건강행위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Kim et al., 2009), 여대생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기에 절주나 금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음주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는 중요한 문제로 대학시절의 문제음주행위가 졸업 후에도 지속되기도 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치료 및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Ham & Hope, 2003)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음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는 학업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hoo와 Lim (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장래문제, 학업문제, 가치관 문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선택 등의 장래에 관한 문제와 학업에 대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은 사회적 지지추구 유형이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중심 대처, 회피중심 대처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Shin (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중심 대처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남학생은 문제해결 중심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지 추구, 회피중심 대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여대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은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회피 중심적 대처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제 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시도를 하는 것이며, 정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정서적 지지를 구하거나 부정적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표출하는 것이 포함되고, 회피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관련하여 현실을 부정하거나 수면, 술, 약물 등을 통해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중심적 대처는 가장 적응적인 대처전략으로 여겨지지만, 회피지향적 대처는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것으로 여겨진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Lee & Cho, 2011). 이를 통해 본다면 여대생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나 문제해결 중심 대처 행동을 회피중심 대처방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주기대는 음주결과에 대해 긍정적 음주기대가 2.62점, 부정적 음주기대가 2.25점으로 긍정적 음주기대가 다소 높았는데, Kim (200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음주기대가 부정적 음주기대보다 높아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음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여대생의 절주교육에는 긍정적 음주기대를 감소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행위와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Jung (2009)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평생음주율과 연간음주율, 알코올 남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 관련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 (200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 관련문제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Park과 Rhee (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스트레스와는 상관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대생에게 있어 음주행위는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보다는 선·후배의 친목 모임과 신입생 환영회 등 학교내 행사 참여 및 또래 친구들과의 사적인 모임들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보다 사적 모임이나 대인관계 유지 등의 사회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스트레스가 음주행위와는 관련은 없었지만, 스트레스는 회피중심의 대처 양상이나 긍정적 음주기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양상에서 회피적이 되고, 음주결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Yang과 Han (2003)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문제해결 중심 대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지각과 정서 중심 대처간에는 순상관 관계를 보여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대처 행위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대처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회피하거나 음주에 기대려는 하는 경향을 알 수 있어서 이에 따라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는 실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결과에 대한 음주기대 중 긍정적 음주기대와 음주행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음주에 대한 기대 중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는 동일 차원의 양극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서로 독립적 차원에서 음주에 관여한다고 보기도 한다. 기대-가치 이론에 의하면 긍정적 음주기대가 증가하면 부정적 음주기대가 감소하고 음주행위는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에 기대이론은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는 서로 독립된 차원에서 음주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본다. 즉 긍정적 음주기대의 상승이 부정적 음주기대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으며, 각각은 독립적으로 음주행위를 예측하고 있다(Kim, 2000).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결과도 긍정적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부정적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의 변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가 서로 독립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부정적 음주기대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포함하였다더라도 따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대생의 음주예방 및 절주 교육을 위해서 긍정적 음주기대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특히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흡연경험, 용돈, 문제해결중심 대처,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로 3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흡연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용돈이 많을수록, 긍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행위가 높았고 부정적 음주기대가 낮을수록 음주행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스트레스 대처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가 높을수록 음주행위가 더 낮았다. Kim, Choi와 Ann (2004)은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 요인으로 친구의 음주빈도가 21%, 경제상태 8%,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3%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용돈액수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일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Kim 등(2004)에서도 여대생의 음주행위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친구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음주행위를 많이 하고 용돈이 많을수록 긍정적 음주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음주행위는 흡연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행위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지 않아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여대생의 음주문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Mun (2007)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Kuntsche, Knibbe, Gmel과 Engels (2005)는 청소년시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15년간의 종단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적 동기로 음주를 하며 소수만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중정도 음주에서는 사회적 동기로 인한 음주가 많았으며 음주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문제음주자인 경우에 관련이 높았다고 한다. 즉 문제음주자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회피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Yang과 Han (2003)의 연구에서도 문제음주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즉 문제음주자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정서중심적이거나 혹은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회피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만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일반적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음주자가 많지 않았기에 회피중심적 대처나 정서중심적 대처 유형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문제해결중심 대처방안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스트레스 정도와는 관계없이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스트레스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수록 음주행위가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할수록 음주행위가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대생의 음주행위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음주행위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정도와는 상관없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할 때 음주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대생들의 음주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전달되어 음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아울러 중고교 시절부터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학습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음주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고, 대학행

사에서 학생들의 음주행위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만연되고 있으며 음주를 할수록 음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된다 (Borsari & Carey, 2001). 그러므로 여대생의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흡연교육과 병행되어 대학시절 이전부터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절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음주행위정도를 파악하고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음주행위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경험, 용돈, 문제해결중심 대처,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대생의 음주 관련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절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66-1074.
- Borsari, B., & Carey, K. B. (2001). Peer influences on college drinking: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Substance Abuse, 13*, 391-424.
- Boyd, M. R., Baliko, B., Cox, M. F., & Tavakoli, A. (2007). Stress,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in rural African-American wo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1*(2), 70-79.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of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hon, K. K., Kim, K. H., &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Choo, S. Y., & Lim, S. 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blem-focused cop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2), 309-332.

- Do, E. Y. (2007). The effect of the drinking-reduction program adopting transtheoretical and leisure model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3), 363-372.
- Greeley, J., & Oei, T. (1999).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In K. E. Leonard & H. T. Blane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 14-5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m, L. S., & Hope, D. A. (2003). College students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19-759.
- Han, K. S., Yang, S. H., & Chon, K. K. (2003).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ways of coping on symptoms of stress and drinking related problem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3), 567-579.
- Hasking, P., Lyvers, M., & Carpio, C.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behaviour. *Addictive Behaviors, 36*, 479-487.
- Jung, B. Y. (2009). *Relations of stress with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H. K., Choi, E. S., & Ann, J. S. (2004).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ing behavior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0*(2), 205-216.
- Kim, K. H., Kim, J. I., Kim, J. S., & Jeon, H. S. (2009). Correlation study on physiological stress from drinking,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in youth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6*(1), 73-82.
- Kim, S. D. (2000). *The effect of alcohol outcome expectancy on drinking: Comparison between expectancy theory and expectancy-value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Y.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motives for drinkin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Public Mental Health Society Work, 9*, 5-23.
- Kuntsche, E., Knibbe, R., Gmel, G., & Engels, R. (2005). Why do young people drink? A review of drinking mot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841-861.
- Lee, H. J., & Cho, S. H. (2011). The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stress on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9*, 5-33.
- Lee, K. Y., & Lee, S. I. (2000). A study on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alcohol drinking behavior of new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9*(2), 157-167.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oul: Author.
- Mun, Y. H. (2007)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problem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4), 552-561.
- Park, J. M., & Rhee, M. K. (2005).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ocial support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3), 277-293.
- Park, J. S. (200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6* (4), 393-413.
- Shin, H. J. (2002).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uh, K. H., & Yang, S. A. (2011). The role of alcohol use as coping method with stress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18*(1), 331-352.
- Yang, S. H., & Han, K. S. (2003). Drinking pattern, problem 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ymptoms of stress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3*(7), 1057-1064.